

# 조남인입니다

## “내 도자기는 한국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

세 오(Se oh·도예가)

천인보(604/1000)

문화전당 ‘길 위에 도자’ 전시 참여  
인천서 태어나 9개월때 미국 입양  
‘한국 흙’과 유대감 쌓으며 작품제작



Q.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당신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9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입양 후 저는 삶의 대부분을 미국 테네시주에서 살다가 여러 곳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잠깐 뉴욕에 머물다가 거의 15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전 로스앤젤레스 출신 같은 느낌이 듭니다.

Q.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길 위에 도자’ 전시에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A. ‘길 위에 도자’는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참여하는 첫 전시이고 한국 흙과 처음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 우연한 계기로 여기까지 왔고 이젠 제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도전으로 제 작품들은 한 차원 더 성장할 것이고 관람객들은 제가 작품에 녹여낸 한국문화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Q. 미국 흙과 한국 흙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흙으로 작업해 본 경험은 어땠습니까?

A. 저는 한국의 흙과 친해져야 했습니다. 무작정 다루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제 손에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흙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이곳에 왔고 다양한 종류의 흙을 경험하기도 시간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여기 있으면서 저는 한국 흙과의 유대감을 쌓고 저만의 방법으로 한국의 흙을 사용해 한국 도자기의 형태를 갖춘 새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Q. 매우 독특한 경력을 쌓았다고 들었습니다.

A. 연기 공부 후 약 7년 동안 감독으로 일하다가 취미로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도자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때

백자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자기의 소재와 공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다가 백자가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물레를 마련하고 흙을 사서 도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가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빚으면서 흙과 친해졌습니다. 이 작품들을 판매하거나 전시할 예정은 아니었고 그저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

다.

Q. 당신의 도자기의 형태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A. 한국 도자기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전통적인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양식을 제 작품의 기본 형태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항아리나 달항아리, 양쪽으로 볼록한 꽃병 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 할머니 집이나 한국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제 작품의 형태는 제가 한국인임을 상징하는 것이 됐습니다. 또한 도자기의 외형은 제가 정원에서 키우는 많은 식물들과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

다.

Q. 당신에게 예술은 당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입니까?

A. 예술을 통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제가 한국과 진지하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길 위에 도자’에 전시된 제 작품은 한국과 연결되고 싶은 강한 열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러한 열망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작품은 이민자로서 한국인의 모습과 미국인의 모습 사이의 이중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 없어도 관람객들은 작품과 작가 설명만 보고도 작품에 담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성현 기자·사진=나건호 기자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 7월 필자는 광주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 위반 및 행정 절차 누락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 518억 원 중 209억 원을 삭감했다.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 감사를 진행했는데, 최근 그 결과가 공개됐다. 문제 제기한 내용과 감사 결과는 같았다. 광주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정산 검사, 경영 평가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시내버스 업체들이 정산 보고 당시 12억 원이 넘는 수입금을 누락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일부 업체들에서는 임직원 인건비와 연장근로 수당도 부당하게 집행했다. 시내버스 준

공영제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한편 필자는 추경 심사 이후 곧바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는 시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는 원칙이 추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에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활히 시행하고, 재정 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 안전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제4조)는 책무를 부과했다. 또 운송사업자의 책무와 제재 조치도 강화되었는데,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부정행위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부도덕한 행위와 윤리의식에 벗어난 경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제5조). 위반 시에는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위반 유형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정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벌점이 누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제19조).

이달 16일에는 개정안 최종 검토를 위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에는 광주 버스운송사업조합, 광주 시내버스 노조, 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연구원, 광주시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뜨거웠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부터 제재 처분 강행 규정에 대한 우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의 한계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중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용했으며, 수정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을 괴롭힌다는 오해를 사면서도 필자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준공영제는 한해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광주시의 기존 조례에는 타 시도와 달리 책무 규정과 제재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둘째,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15년 감사원 감사, 2019년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조례 개정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벽히 개선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해당 조례 개정부터 시작되었으면 한다.

오는 32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된다. 다행인 것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결국 공감해 주었고, 향후 시내버스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노라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췌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한 제도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조례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